

연우야 어디 가니?



글/그림 김국향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연우야 어디 가니?

2023 마을을 품은 그림책
연우야, 어디 가니?

발간등록번호 인천남부교육-2023-0024

발행일 2023년 11월 30일

글 · 그림 남인천여자중학교 교사 김국향

발행처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51번길 45

전화 032-770-0112

인쇄 몬스터북

이 책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2023 마을을 품은 읽기쓰 그림책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 · 제작되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초, 중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이 책을 교육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와 남부교육지원청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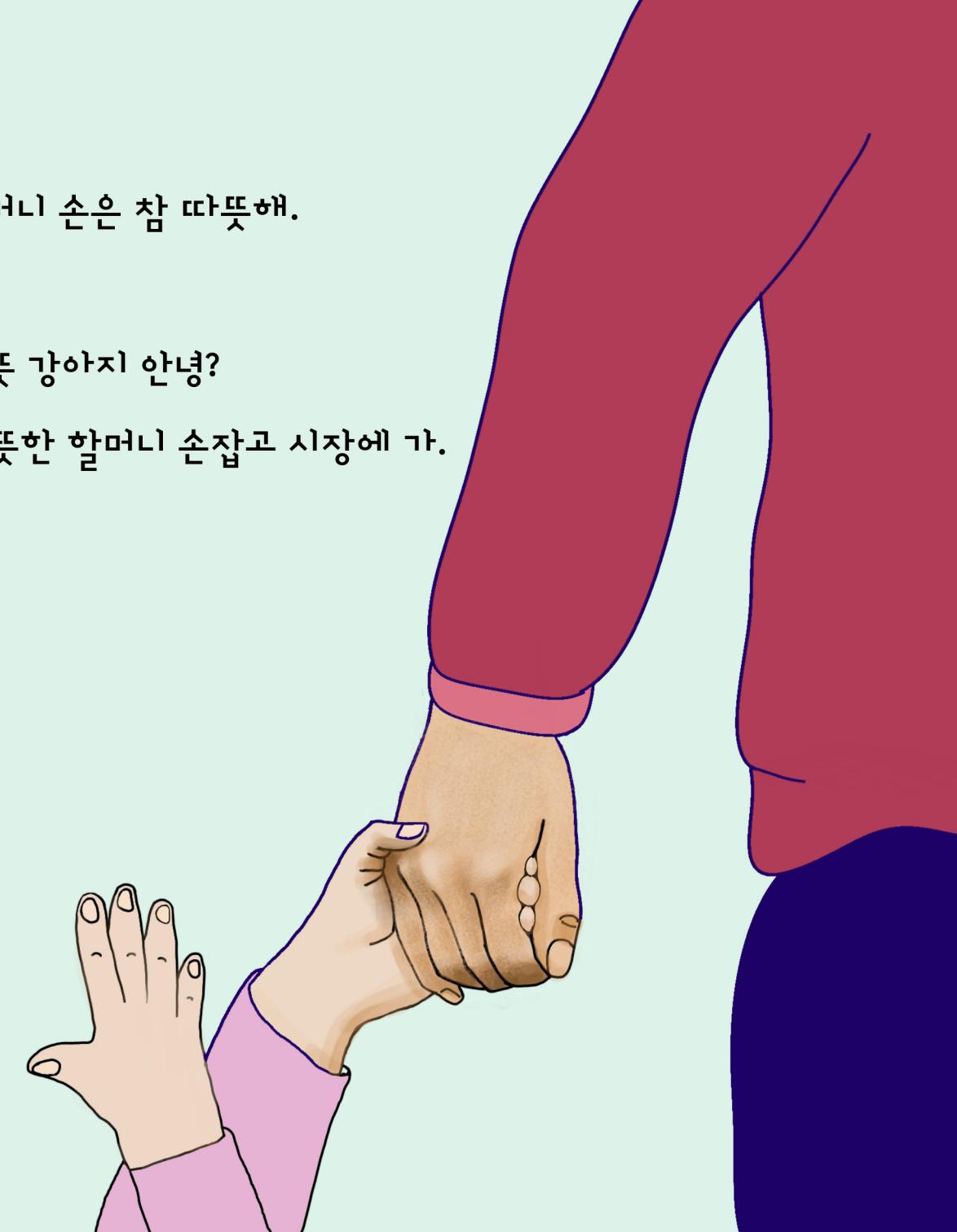
글/그림 김국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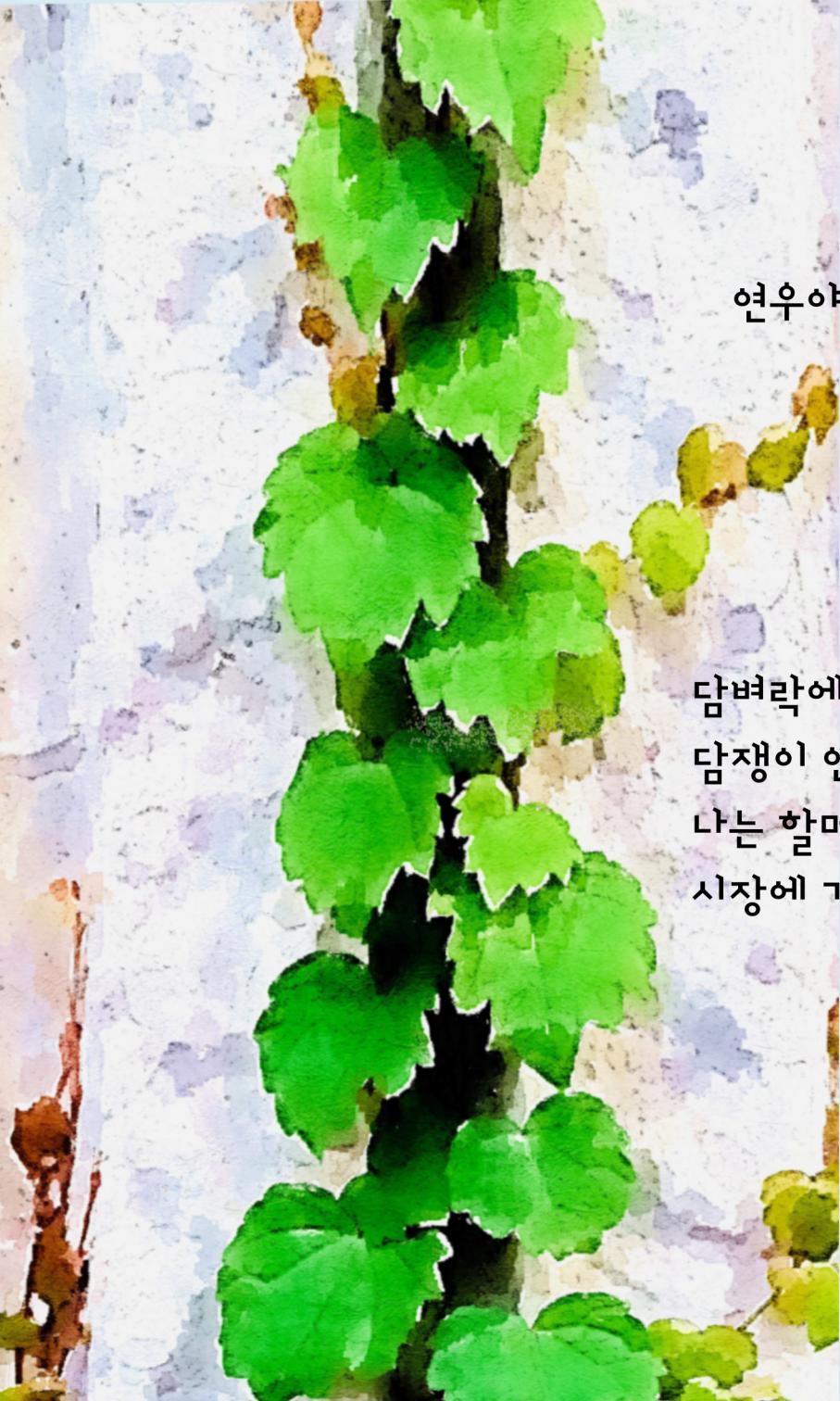


우리 할머니 손은 참 따뜻해.

따뜻따뜻 강아지 안녕?

나는 따뜻한 할머니 손잡고 시장에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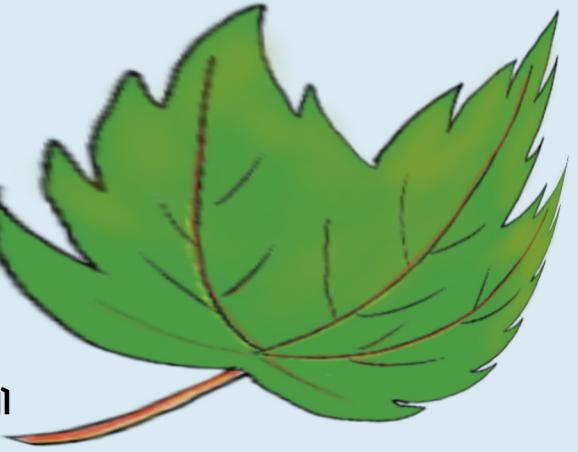


연우야 어디 가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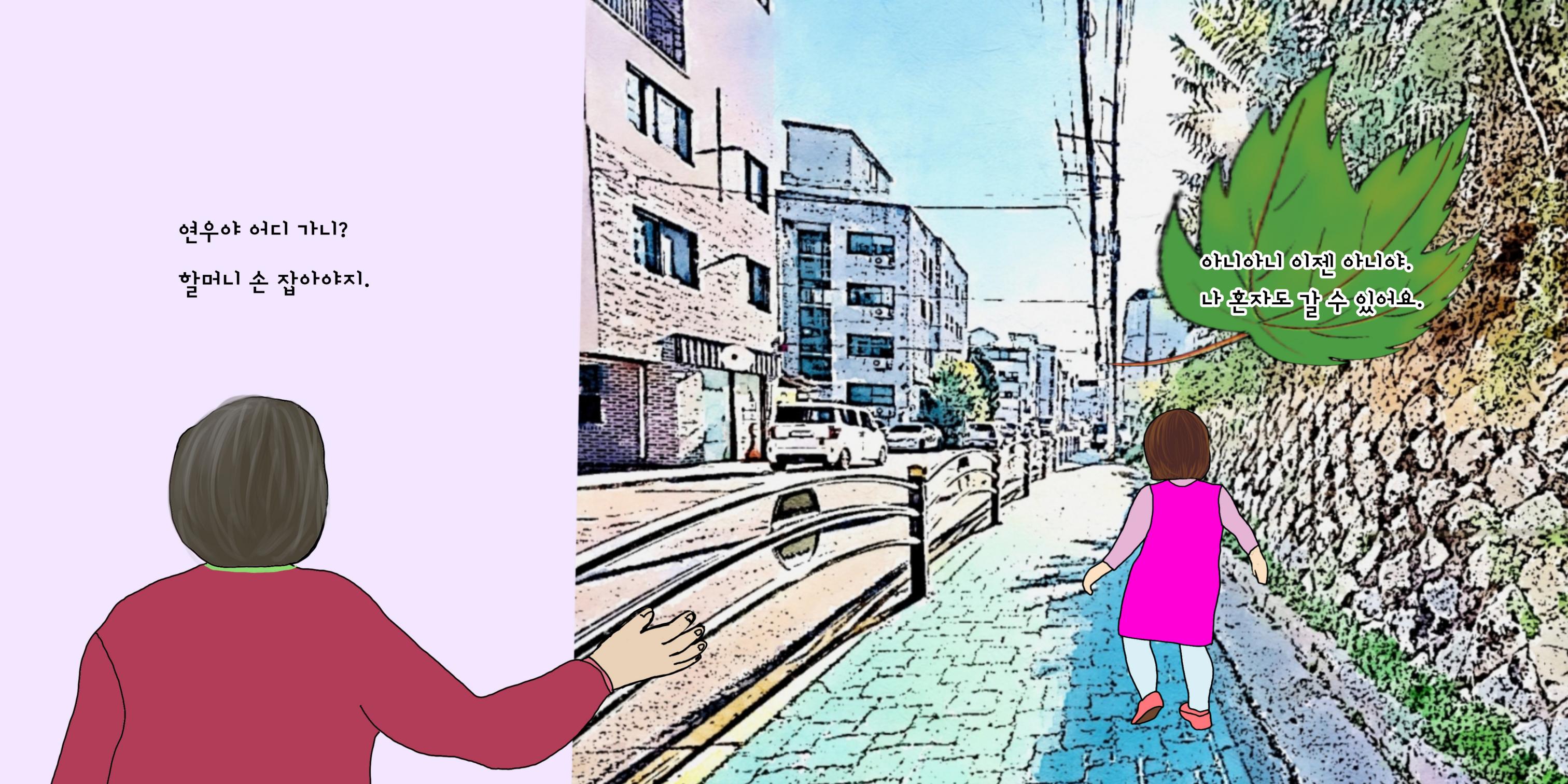
담벼락에 딱 붙어 있는
담쟁이 안녕?
나는 할머니한테 딱 붙어서
시장에 가.

나도 갈래.

너는 담쟁이 엄마한테
딱 붙어 있어야지.



아니아니, 이젠 아니야.



연우야 어디 가니?

할머니 손 잡아야지.

아니아니 이젠 아니야.
나 혼자도 갈 수 있어요.



연우야 어디 가니?

지민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우리 언니 저기 있는데 보러 가도 돼요?

연우는 한 뼘 더 크고 와.

아니아니, 나도 공부 할 수 있어요.





할머니,
이건 당근, 이건 양파,
이건 오이, 이건 감자.

아니아니, 오늘은 파 한 단만 살 거야.



연우야 어디 가니?

할머니, 이건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떡이고
요건 내가 좋아하는 떡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 떡이랑 우리 연우 떡이랑
샀다가고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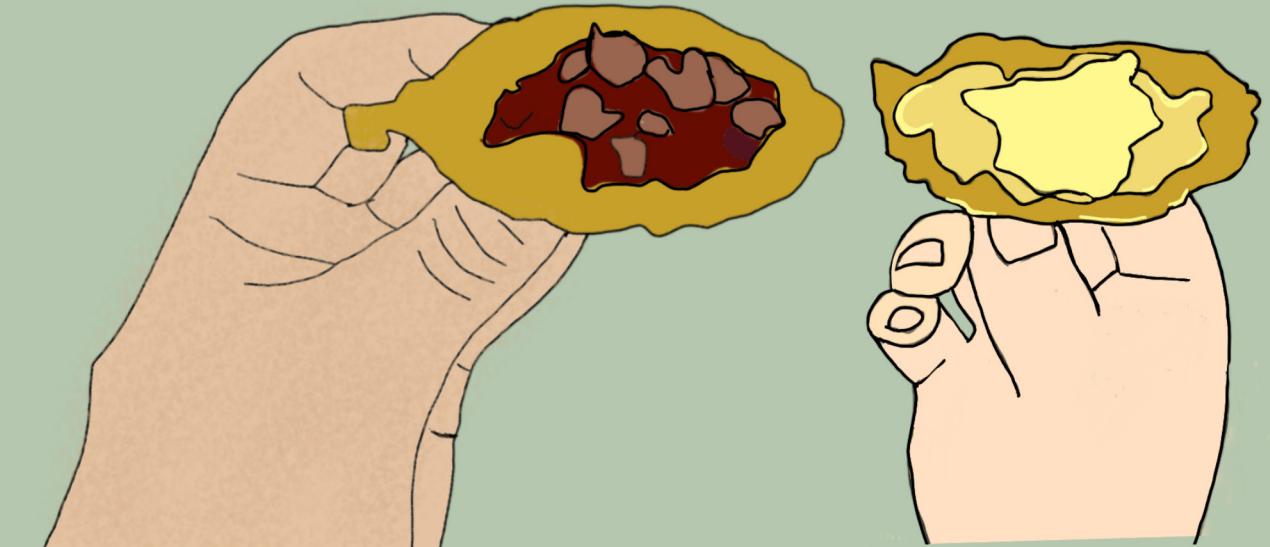
연우야 어디 가니?

야옹이 안녕?

오늘은 아저씨가 봉어빵을 구우셔.

할머니는 이거, 나는 요거,

야옹이도 요만큼.





연우야 어디 가니?

민주네 엄마야.

민주는 엄마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여기에 오면 돼.

우리 엄마는 저녁 먹을 때 오시는데...

할머니, 오늘도 이만큼 사요?

그래그래, 오늘도 이만큼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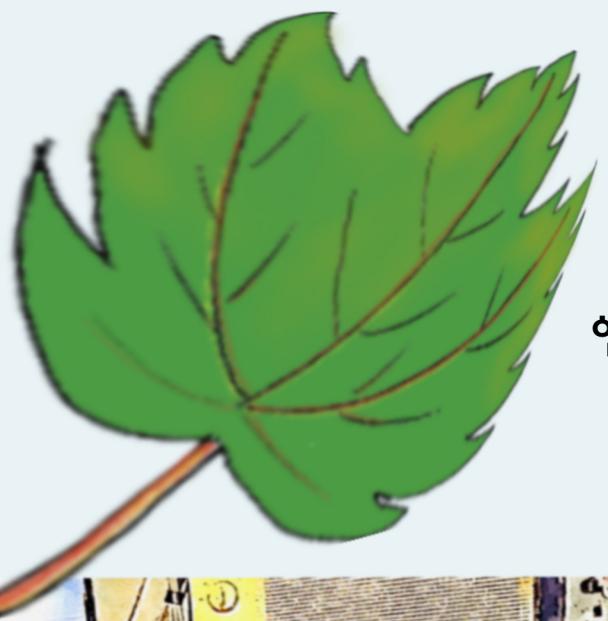


저기 있는 파란 옷은 우리 아빠 옷이야.

내가 들 수 있어.

할머니,
내가 들고 갈 거예요.





연우야 어디 가니?



할머니 구두 찾으려 가.

어, 이건 우리 엄마 구두다.

저기 있는 빨간 구두는 누구 거지?

꺄아아아

연우 맞으면 신고 갈래?



야옹아, 어디 가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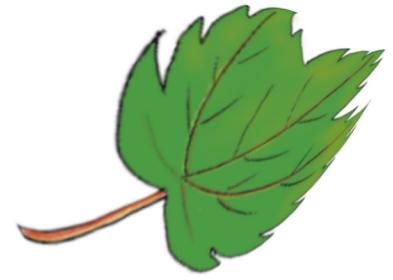


나는 이제 집에 갈거야.
엄마가 놀라리거든.



그리고, 나도 집에 가.

아빠 옷도
할머니 신발도
다 내가 들고 갈거야.





할머니, 문구점 오늘도 문 닫았어요.
문구점 못가서 연우가 심심하겠네.





연우야 어디 가니?

나도 뛸 수 있어.

그랑그랑, 같이 놀자.

연우야 공 좀 주.

연우야 괜찮니?



할머니, 이젠 넘어져도
나 혼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우 혼자 할 수 있어.



장애는 사랑이어라



담쟁이야 어디 가니?

연우야 안녕. 나는 이제 바람이랑 함께 더 멀리 갈 거야.

담쟁이 안녕. 나도 한 뼘 더 크면 더 멀리 갈 거야.

근데 지금은 우리 할머니 냄새가 참 좋아.



Title. 연우야, 어디 가니?

Date 2023년 11월 23일

Publishing 몬스터북

Number 1123-1668205

Monster
Book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며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책은 freepik.com의 이미지가 일부 사용되었습니다.



www.monsterbook.co.kr



<작품 후기>

용남 시장 주변을 걷다 보니 옛 모습이 아직 남아 있는 골목길이 인상 깊었고 용인초등학교 뒷담에 아이들이 그려 놓은 구여운 벽화가 미소를 짓게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만 배우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건네는 말 한마디, 동네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경험, 담벼락의 담쟁이 햇 하나하나, 길고양이 한테서도 배우며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집 앞 골목에서 늘 아이들과 함께 뛰어다니고 동네 어르신들의 잔소리와 수다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는 해맑은 연우를 용현동 어딘가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남인천여자중학교 교사 김국향-

<작품에 나오는 장소> 용남시장, 용인초등학교 골목 벽화길, 용인초등학교 후문 주변 상가